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7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감히, 사랑!

(롬8:35-37)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YWCA강당 (증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4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YWCA연합회

씨앗헌금

카카오뱅크 3333-26-6231343 □○ㄹ



공동주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공간 엘리사벳,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나비,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새민족교회, 서울YWCA, 움트다, 위드유센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부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부 학생회 (24개 단체)

감히, 사랑! (롬8:35-37)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끌이: 폴짝(민는페미) 반주: 민아름(기독여민회)
수어: 함혜원(서울농아감리교회) 문자통역: 모두가 행복한 소통, AUD
촬영 및 중계: 박찬영, 김진수(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YCK),
이은재(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침묵기도 이끌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함께 2분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 울림)

(호흡하는 템포에 맞추어) '힘을 주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3회)

(침묵 후 종 울림)

호흡기도란, “여러 종교 전통들은 주의 깊은 호흡이 내면세계로 집중하는 일을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편안하고 규칙적인 속도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은 느려지면서 안정이 되지요. 호흡할 때는 척추를 똑바로 곧추세우고 바로 앉아서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땐 단어 한 개나 간단한 구절을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다른 단어나 구절을 말합니다. 숨을 처음 들이마시는 것은 탄생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을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호흡이 조금 어색하고 의미도 없게 느껴지지만, 매일 연습해나가다 보면 점차 하나님과 일치되는 구별된 시간속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출처: 조이스럽 지음, 『내 인생의 잔』, (한국기독교연구소). p24)

† 예배로의 부름 성 시므온의 기도 | 이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어나고 제 가녀린 손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은 제 발로 들어오셨기에 그분은 무한한 '나'가 됩니다.

제 손을 움직이자 놀랍게도 제 손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제 발을 움직이자 곧바로 그분이 순식간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여십시오.

당신의 깊은 곳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몸, 모든 것,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깨어나 기뻐하며 그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실재하게 만드십니다.

감히, 사랑! (롬8:35-37)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 입은 모든 것, 우리를 어둡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추하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변모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자명해지며, 모든 것이 그분의 빛 안에서 밝게 빛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속한 자로 깨어납니다. 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멘.

(출처: 성 시므온(949-1022) 신시아 부조, 「희망의 신비」, 김형욱 역 (IVP, 2015) p.6)

† 찬송 엘리사벳의 노래 | 함께

사 FSC 곡 이희영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song titled 'Elysa's Song' (엘리사벳의 노래).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s ♩=60.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the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staff. The score is divided into systems, with line numbers 5, 9, 13, 17, 21, and 24. The lyrics describe a person who is weak and alone, but who finds strength and hope through faith in God. The lyrics are:

 내 가 - 상상 하지 못 - 한 일 홀 로 - 감 당 할 수 없 - 는 일

 외 롭 고 - 용 - 감 한 손 - 레 가 친 절 - 한 - 환 대 를 - 만 나

 하 나 님 - - 약 속 하 신 일 - 이 나 - 이 잔 - 을 지 - 나 가 게 하 소 서 -

 서 로 예 - - 게 - 온 기 를 - 주 네 - 두 려 움 - 없 이 - 주의 뜻 불 잡 네 -

 나 의 - 두 - 러 운 마 - 음 을 주 님 - 먼 - 저 살 피 - 시 고

 우 리 - 함 께 건 는 이 - 길 에 힘 오 - 와 - 차 별 만 - 나 도

 다 독 여 - - 내 맘 위 로 하 - 시 며 나 에 게 - 그 델 - 선 물 - 하 서 - 었 - 네 -

 그 들 을 - - 흠 으 시 는 주 - 님 이 우 리 를 - 당 당 - 하 게 - 세 우 - 시 - 네 -

 - 년 혼 자가 - 아 니 - 아 너 와 연 결 된 - 사 - 람 - 너 와 함 께 할 - 사 - 람 - 이 비 를

 연 결 된 - 내 - 가 - 너 와 함 께 할 - 테 - 니 -

 맞 아 줄 - 거 - 아 년 혼 자가 - 아 니 - 아 너 와 연 결 된 - 사 - 람 - 너 와

 맞 으 러 - 가 - 자 연 결 된 - 내 - 가 -

 함 께 할 - 사 - 람 - 이 비 를 맞 - 아 - 줄 - 거 - 아

 함 께 할 - 테 - 니 - 맞 - 으 - 러 - 가 - 자

† 우리의 기도

현안기도 | 방소연(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자유와 평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짙은 폭력, 차별과 혐오의 희생자가 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짓밟혔고, 도망치거나 숨으려 할 때 안전한 곳, 안전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괴롭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은 '차별, 혐오와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죄에 빠져있습니다. 정의를 향해 뻗은 팔을 자르고 평등을 부르짖는 입을 막습니다.

지난 해, 꿈과 기대를 안고 온 캠퍼스 생활을 하던 여학생은 잘못된 욕망과 무력에 희생당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스러졌습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 가해진 2차 폭력은 끔찍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일을 해야 할 직장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나 세상이 들끓었습니다. 수차례 용기를 내 소리 지른 여성들은 오히려 이상한 대우를 받거나 쉽게 내뱉는 동료의 말, 개선되지 않은 처우와 환경 속에서 위협당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묻지 마 여성혐오 범죄가 또 강남역에서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훨씬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 종교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신의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 교회 내 위계질서와 권력 관계, 성차별과 성 역할의 강요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이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악함을 계속 드러내고,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연대하며 용기를 내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된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그들과 오늘 모인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금을, 안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걷는 길이 어제처럼 그저 당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책 기도 | 강수빈(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사건 이후 7년 동안 매해 여성혐오범죄의 근절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성혐오범죄 사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 실의에 빠지고, 답답해하는 사이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놓친 것은 아닌지, 고통의 현실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기억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성폭력 범죄를 보고 깊이 관심하지 않은 것, 일상에 안주하며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로는 타인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살면서 보고 듣게 되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알고자 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방관했던 것. 버거운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지 못한 것, 모두 다 우리의 연약함이며, 죄임을 고백합니다.

희생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놓고 논쟁하며 2, 3차 가해를 했던 것, 서로를 돌보기보다 개인주의로 살아갔던 이기심, 여성혐오가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 묵인하고 외면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의도와 별개로 가해졌던 혐오의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던 부끄러운 지난날을 돌이키게 하소서. 또한, 교회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에게 당연히 맡겨

오던 일들을 꾸짖지 않은 것을, 여성폭력 및 교회성폭력 문제를 등한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이자, 공동의 책임임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희생자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으며, 우리도 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고민하는 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긴 법적 싸움을 하는 이와 동행하며 더 먼 길도 함께 가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에 귀 기울이고, 나의 아픔으로 품어 상황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연대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위로 선포 | 김나경(한국YWCA연합회)

용서와 위로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신 생명, '하와'의 몸과 삶은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와의 뒤를 이은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느끼도록 억눌린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하와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라며 강요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 호흡과 생기를 기뻐하셨기에 우리도 스스로를 기뻐합니다. 당신의 위로와 온전한 사랑이 선포되니, 그 가운데 온전한 쉼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요8:7)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차별 없는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은 누군가가 독점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내려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폭력으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때, 몸의 경계가 침해받아 위축될 때, 나 홀로 남겨진 거 같은 외로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돌과 비난이 아니라 빵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서로의 눈동자를 통해 우리 모두 귀한 하늘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서로를 지탱하며 위로합니다. 감히 사랑을 외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얽힙니다. '감히 사랑!'의 복된 소식이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퍼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잡음을 기억하소서. 이 연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잡은 손을 감히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가운데 펼쳐집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생명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의 온기를 몸과 마음에 기억합니다. 언젠가 다시 차별과 폭력이라는 세상의 벽에 부딪혀 몸과 마음이 얼어붙고 산산이 깨어질 것 같은 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갈릴리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감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히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十 교독 여성시편 6편 “여성공동체의 기도”

이끌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회 중: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끌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 중: 하나님의 의를 펴고자 애쓰는 여성들의 공동체가 가부장제의 폭력으로 힘을 잃고 있으니 손잡아 주십시오.

이쁨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슬픔에 잠깁니다.

회 중: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쁨이: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회 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쁨이: 죽어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덤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회 중: 우리는 외치기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흘리던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쁨이: 그래도 정의는 보이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회 중: 우리의 마음도 사랑에서 미움으로 변하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쁨이: 이 세상을 권력으로 통째 삼키려는 사람들아, 모두 다 이 땅에서 물러가거라.

회 중: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함 께: 저 강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출처: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성서언어연구반 엮음,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시편』(여성신학사, 2005), 70쪽)

† 말씀 읽기

로마서 8:35-37 | 박소영(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3:34-35 | 이진혜(위드유센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특송 시편 6편 | 이수현(기독교여민회)

† 말씀 펴기 감히, 사랑! | 이민희(옥바라지선교센터)

† 사랑의 메시지 최소영(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프리다(공간 엘리사벳)

사랑은 나를 환대하셨으나 먼지와 죄로 더럽혀진 내 영혼은 뒤로 물러났다.

그런 사정을 한눈에 아신 사랑은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꾸물거리는 모습을 보고 내게 다가와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다정하게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매정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낮을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꼭 붙잡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 외에 누가 네 눈을 만들었느냐?"

"주여, 옹습니다, 저는 제 눈을 망쳤습니다. 제 수치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소서"

사랑이 말씀하셨다. "누가 그 수치를 담당했느냐?"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이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앉아 내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나는 거기 앉아 먹었다.

(출처: 사랑 - 조지 허버트 저, 정애성 역)

† 성만찬 공동집례자: 장근지(문수산성교회), 이영미(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분별분잔위원: 그림자(무지개신학교), 한혜수(새민족교회)

| 성만찬 초대와 응답

집례자1: 여인들의 친구시며 약하고 고통 받는 자들의 위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죄와 어둠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며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집례자2: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약자를 소외시키며 자기의 권력을 쫓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기만과 위선에 분노하고 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사회가 혐오하던 이들을 벗으로 부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모두 나아와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에 참여합시다.

회 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마라나타

마라나타 - 마라나타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마라나타- 마라나타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서

|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1: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미리암을 춤추게 하시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감동케 하시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오순절 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성만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어,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회 중: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과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성만찬 제정사

집례자1: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베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십시오.

집례자2: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베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입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고 나의 삶을 따르십시오.

집례자1: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회 중: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성혐오로 가슴이 썩어가는 이들, 강간당한 이들,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힌 이들, 가부장제의 쇠사슬에 묶인 이들과 한 상에 둘러앉았던 것을.

집례자2: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합니다.

회 중: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손가락질당하며 멸시당하다 모든 이의 구원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을

집례자1: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선포합니다.

회 중: 주님이 착취와 억압과 폭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함 께: 우리의 피난처, 생명과 소망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찬을 기념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 주의 기도

집례자2: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 각 교회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기도합니다.

여성들의 주기-도문

(출처: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5주기(2021.05.25.) 여성주의연합예배 때 발표함.)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감히, 사랑! (롬8:35-37)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 여성들의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본래 뜻과 다르게 몇 구절은 왜곡되게 해석되며 힘 있는 자의 변명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됐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2021년 여성주의 연합예배공동체에서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하여 주기도문을 재해석하였다.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도문이 여성들에게 ‘주기’(empowering)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돌려-주기’,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권한-주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등과 같은 여성주의적 역동과 실천을 기대해본다.

| 평화의 인사

집례자1: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집례자2: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회 중: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 분병례

집례자1: (떡을 들고)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며)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2: (잔을 들며)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아멘.

| 성찬에의 참여(분급)

집례자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회 중: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습니다.

집례자2: 이제 한 사람씩 앞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주)

먼저 성찬위원들이 성찬을 한 후에, 회중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회중은 중앙통로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한 후에 양쪽길로 돌아갑니다.

집례자1/분병위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2/분찬위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아멘.

| 성찬의 식탁으로(어노인팅)

이지음 작사, 작곡

성 찬 의 식 탁 으 로 주 님 이 초 대 하 -

네 어 떤 차 별 도 - 없 이

누 구 나 오 라 - 하시 - 네 - 그

떡 과 잔 으 로 하 나 되 어 서 - 그

몸 과 보 혈 로 한 몸 되 어 서 -

함 께 먹 고 또 함 께 마 시 며 주 안 에 함 께 살 - 자 -

서 로 섬 겨 필 요 를 채 우 고 그 나 라 함 께 가 - 자 함 께 가

자

| 감사의 기도

집례자1: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당신의 사랑에 속한 자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 중: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집례자2: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이제 차별과 억압으로 뒤틀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감히, 사랑! (롬8:35-37)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 얼마나 오래

D G A Bm G A

1얼 마 나 오 래 기 도 하 면 서 나 를 바 칠 수 있 나
 2얼 마 나 오 래 가 슴 줄 이 며 빵 을 모 을 수 있 나
 3얼 마 나 오 래 준 비 되 었 나 울 은 일 하 는 마 음 때
 4푸 르 른 초 원 모 두 모 여 서 주 님 말 씀 들 을 때

D G A Bm G A D

얼 마 나 오 래 기 다 리 면 서 세 상 바 꿀 수 있 나
 얼 마 나 오 래 눈 물 닦 으 며 땀 을 흘 릴 수 있 나
 얼 마 나 오 래 참 을 수 있 나 겁 에 짓 눌 린 실 패
 빵 과 물 고 기 나 뉘 먹 이 며 기 적 이 루 어 냈 네

후렴 G D G A

주 린 내 이 웃 을 먹 여 눈 물 닦 아 줄 때 에

D G Bm Bm/A G G/F# Em A D

한 사 람 한 사 람 먹 여 주 셧 던 주 님 기 억 합 니 다

'얼마나 오래' 4절을 부를 때, 헌금위원이 헌금바구니를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 드림 (씨앗 헌금) 위원: 홍다은(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박영우(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서우열(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드림 기도 | 김순임(서울YWCA)

하나님!

당신의 딸, 우리의 자매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젠더폭력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헌금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인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이 땅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차별에 공감하지 않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치열한 싸움터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이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고백하며 낙심치 않겠습니다.

씨앗헌금으로 이 예배를 섬긴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연대의 씨앗으로 심기워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연대함으로 차별과 혐오로 존엄을 빼앗긴 이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도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나아가** 엘름댄스 | 이한빛(한국YWCA연합회)

‘느릅나무 춤’이라 불리는 엘름 댄스는 반핵평화주의자인 조안나 메이시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어 방사능 피폭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소련은 인공구름을 만들어 느릅나무 숲에 방사능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방사능비를 맞은 느릅나무는 죽어갔고, 그 숲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름 댄스는 평화의 기원을 담아 핵발전소로 희생된 생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애도하며, 상처 받은 지구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기도의 몸짓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수많은 폭력과 차별, 혐오, 아픔을 기억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다경, “모두 다 꽃이야” <https://www.youtube.com/watch?v=P9u5wxrHUvk>

† **파송 찬송** 사랑이 이긴다 | 함께

♩ = 100

항투카

G B C Am D7 G

사 랑 이 이 긴 다 — 사 랑 이 이 긴 다 —
 평 화 가 이 긴 다 — 평 화 가 이 긴 다 —
 정 의 가 이 긴 다 — 정 의 가 이 긴 다 —

G B C Am7 G/D D7 G

세 상 에 아 무 리 강 한 혐 오 도 사 랑 이 이 긴 다 —
 세 상 에 아 무 리 강 한 폭 력 도 평 화 가 이 긴 다 —
 세 상 에 아 무 리 강 한 현 실 도 정 의 가 이 긴 다 —

Fine

Em D/F# G Am G/B C6

그 래 이 제 함 께 가 보 자 두

Em D/F# G Am G/B C6 D

손 꼭 잡 고 함 께 외 치 자 — —

D.C. al Fine

C Maj7 Am7 Em C Maj7 D7 G

모 든 걸 내 려 놓 고 — 생 명 을 바 라 보 자 —
 늦 은 밤 타 오 르 는 — 불 꽃 을 바 라 보 자 —

C Maj7 Am Em C Maj7 D7 G

송 고 한 그 길 을 따 라 가 는 우 리 의 사 랑 이 이 긴 다 —
 마 음 속 에 꺼 지 지 않 는 우 리 의 사 랑 이 이 긴 다 —

† 파송사 안수경(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말은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가 지혜로운 눈, 섬세한 언어, 굳센 발로 교회와 사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이 편견과 통념에 도취되어 존재를 지우고 생명을 혐오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더해 우는 이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애쓰고, 특별히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력하는 일에 부름 받아 나섭니다.

회 중: 우리가 외칠 때 더 많은 존재가 안전하고 숨 쉬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이의 비명을 듣고 숨겨진 이들의 자리를 찾아가 돌보겠습니다.

말은이: 세상에 온전한 생명과 평화가 움틀 때까지, 이 연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백래쉬를 함께 맞서며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함 께: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새 세상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대의 끈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 공동 축도 함께

모든 폭력과 차별을 거부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에게, 먼저 그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맞이할 해방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늘 뜻 펼칠 때,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며 매일매일 평화롭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 새날을 함께 열자며 손 내미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주관, 예수를 기다리는 여자들-몸으로 드리는 치유와 해방의 예배문” 중에서(2020년 12월 24일), 프리다 작성&이은재 수정)

설교문 감히, 사랑! | 이민희(옥바라지선교센터)

감히 사랑을 말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인 예수를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일, 그리고 예수가 그의 육신으로 죄를 지고 죽어야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롬 8:3). 이어 그 사건의 결과와 의미를 해석하지요.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으로써,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과거 율법을 지켜 인간답게 살아보려 했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전부 지킬 능력이 없으며 사실 율법 자체도 모든 세계를 품지 못합니다. 심지어 율법은 통념과 뒤섞여 변질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야 할 법이 혐오와 차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을 반복적으로 낳았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관습과 고정관념이 생명과 평화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벌이셨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삽니다(롬 8:14).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이 보여준 대로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희망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며 사는 것입니다(롬 8:6). 방식은 여럿 있겠지만 우리 삶이 언제나 생명과 평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벽차면서도 만만치 않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 각자가 표현할 사랑, 감히 사랑입니다.

2016년 5월, 서울 도심의 주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통념은 당시 미디어의 언어를 빌려 이를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몰아가려 했고, 남은 이들에게 몸단속 잘하라는 훈계를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주변인을 위로하는 목소리는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을 뺨곡하게 채웠던 얇은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 사건을 외면하지 말자는 다짐이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연대를 발판삼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와 정책을, 통념을 비로소 꾸짖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여전히 느리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7주기를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그와 똑같은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신당역 살해/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 직장과 학교, 가정, 교회, 대중매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비남성을 향한 혐오발언/ 신체조건과 겉모습에 대한 평가/ 정상성을 내세우며 나머지를 차별하고 비가시화하려는 행동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에 반발하면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몰립니다. 이뿐만 아니죠. 인권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과 평화를 지켜야 할 제도와 정책이 이념주의 아래로 몰락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귀어촉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남성, 비이성애라면 지워버려야 한다는 죄와 육신의 생각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우리 공동의 기억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같이 정죄만 하는 거대한 목소리에 맞설 수 있는 힘은, 7년 전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득했던 포스트잇의 약한 접착력, 하지만 기꺼이 자필로 써 붙인 공감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성서 전체 이야기 속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와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아픔이 성서와 우리 전통 안에서 공명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마다 드린 이 예배의 주제를 짚 훑어보았습니다. 3주기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4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5주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작년은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목소리를 빌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 또 예수와 그가 만난 많은 인물의 목소리로 우리는 혐오 범주를 기억하고 다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미래의 디딤돌을 그리스도교가 놓아야 합니다.

혹자는 여성주의를 또 다른 혐오라고 폄하할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여성성을 세상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편을 가르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의 여성됨, 또는 내가 이해하고 수용한 나 자신을 기꺼이 소리 내어 말하는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해 모든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분열된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워졌던 경험을 용기 있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위협받고 무시당했던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성령 안에 끈질기게 머물며 생명과 평화를 갈구합니다. 다른 이에게까지 마음을 잇습니다.

여성이라서 살해당하는 사건마저 우리는 이제 사랑의 틀로 해석하길 시도합니다. 혐오를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애씁니다. 우리는 맹렬한 분노도, 두려움과 불안도, 우리를 향한 공격과 오해도 연대와 인간성 확장의 씨앗으로 사용합니다. 반복된 우리의 이 추모가, 매년 기억해내어 새롭게 해석하는 과거의 사건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미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낭송한 어맨다 고먼의 시 중 “등대”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줍니다. 그는 청각처리장애를 가진 흑인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딛고 연대와 사랑의 이야기를 시로 전합니다.

우리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린 내내 서로를 감지해왔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드넓게 불 밝혀, 조용히&헤매면서.
그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여성됨은 더 넓은 인간 범주를 이해하고 비인간존재까지도 우리 품 안에 넣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마무리짓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새번역).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격려하고 재촉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희망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너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히, 사랑! (롬8:35-37)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씨앗 헌금자 명단

강하니 강현정 김나경 김동진 김수진 김용은 김하종 김현정 김화숙 대한성공회여성성직자회 민숙희 민아름
박다혜 박정하 박진선 섬돌향린교회 양태영 이뿐이 이영미 이지혜 이향림 이희선 전주하이기쁨교회 정혜진
조은아 진행연 채송희 최규희 최소영 최은영 하나라 한세리(느헤미야) 홍다운 홍보연 황창진 (총 35명)

전체 기획: 여성주의연합예배공동체 준비위원회

실무: 황보현 회계: 민아름 홍보: 그림자, 김예리, 이한빛 예배팀: 이현주, 최은영

무대: 강수빈, 이현주 씨앗헌금: 그림자, 이기쁨 디자인: 제제